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쉬워지는 양도세 신고... 토지양도까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총 4만 3000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가 간단한 확인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월 건축물 양도를 대상으로 시행해 11월에는 토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이전 양도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영상이 게재돼 있으며, 안내문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향후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국세청, 세금 걱정 없는 수출길 확보... 이중과세 125건 해결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1~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들은 해외 현지 및 국내에서 소득을 두 번 신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 냈던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과세당국들은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계열사 간 거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조정해 특정 국가에 이익을 몰아줘 현지의 과세를 회피하는 지를 두고 과세 마찰이 벌어지곤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국과 해외 과세당국간 이견으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외 과

세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 합의 건수(APA)는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8% 증가해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APA를 승인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협의를 위해 6월 일본 국세청장 회의를 시작으로 코로나 19로 중단된 대면 국세청장 회의를 재개, 지난 9월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담회의, 12월 중국 국세청장과의 우리 기업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 측은안심하고 국내외 원활한 투자를 위한 세무 안정성을 제공하고,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가업승계 증여 10%, 저율과세구간 120억원으로 완화

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이 완화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종전에는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